

# 광주정신 빛내는 시민들 '행복한 집짓기'

광주 봉사단체 '희망나무'  
장애아동 가족 새집 마련  
주민·업체도 성금·재능기부

광주시 남구 대촌동 허름한 집에서 노모와 장애를 앓는 아들과 살고 있는 부부에게 새 보금자리가 생긴다.

(사)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는 17일 "최근 대촌동의 A(43)씨 주택 터에서 '더(the) 행복한 집' 착공식이 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농사로 생계를 꾸리며 빚물이 새고 겨울이면 건물 전체에 비닐을 둘러야 할 만큼 낡은 주택에서 몸이 불편한 모친과 앓을 볼 수 없는 아들을 부양했다. 붕괴 위험까지 처한 주택에서 생활하던 부부의 딱한 사정은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알려졌다.

건축 비용은 인근 대촌동과 봉선2동 주민이 500만원씩, 남구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단법인 희망나무가 4000만원을 보태 마련했다.



(사)희망나무는 지난 17일 남구 대촌동의 한 주택 터에서 최영호 남구청장, 기초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the) 행복한 집' 착공식을 열었다. <희망나무 제공>

설계를 맡은 한샘 건축사사무소는 재능을 기부했고 시공사인 선운건설은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후원했다.

주택을 허문 자리에 새로 올리는 집은 77㎡ 크기로 오는 12월께 완공 예정이다.

서정성 이사장은 "집이 오래되어 낡고, 무엇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불편하

게 생활하였는데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어서 더 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희망나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희망나무는 나눔과 희생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자 2015년 '갑보디아 광주진료소(소장 임동훈 조선대학교 비뇨기과

교수)'를 갑보디아에 개원해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광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광주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및 집짓기 등 봉사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착공식에는 최영호 구청장, 기초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가을 낭만은 지하철을 타고

### 광주 농성역 '북카페' 개소·금남로4가역 '바자회'

광주도시철도가 낭만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8일 광주시 서구 농성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 20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고객행복공간' 개소식을 갖는다. 고객행복공간은 다양한 책과 안락한 의자 등을 비치한 북카페로 꾸며져, 여유와 낭만이 있는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농성역의 '고객행복공간' 조성 과 함께 전역시에 설치된 '책사랑방'을 확대 운영해 '책 읽는 시민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시민,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일만여권이 넘는 도서를 기증받아 활용

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부터 금남로4가역에서 아름다운 가게 광주목포본부와 함께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열고 자원순환과 사랑나눔을 실천한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 임·직원이 정성을 담아 기증한 도서, 의류, 생활용품 등 1만여점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해, 수익금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지역의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호 사장은 "이 가을 시민들이 보다 더 깊은 행복에 젖어드시기 바라며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광주지하철과 함께 책과 문화를 즐기, 절약과 나눔도 실천하는 의미깊은 가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영산강변 자전거 무료로 빌려 타세요"

### 광주환경공단 대역 서비스

광주환경공단이 최근 역새와 코스모스가 만개한 영산강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17일 "가을을 맞아 시민들이 영산강의 멋진 경관을 보다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영산강 자전거길<사진> 안내센터(서구 서창동길 377)에서 공유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14세 이상의 연령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2인용 자전거 7대가 구비되어 연인과 가족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의 주변과 황룡강 친수공원의 산책로, 영산강 승촌공원 캠핑장 주변 등 도합 4만2000㎡에 해당하는 면적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 시민을 맞고 있다.

안용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은빛 역새, 만개한 코스모스 등 영산강의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깊어가는 가을, 영산강을 찾는 시민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안전캠프. 광주도시공사는 17일 전북 소방본부 임실 119안전체험관에서 임직원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제2기 안전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캠프는 재난종합체험(재난월드), 위기탈출체험(스릴월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공사직원 90명이 안전캠프체험교육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 편한 독서...사직도서관 '큰 글씨 도서관'

시립사직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자료실에서 테마도서전 '대월자본 도서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은 글씨로 된 책을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저시력자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월자본 도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일반도서보다 큰 글

자로 특수 제작된 책이다. 전시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대월자본 보급 확대 사업'에 따라 지원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처음처럼' 등 총 30여 권이다. 전시 기간에는 열람만 하고, 전시가 끝

##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 일가정양립본부와 한 지붕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0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확장 이전했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과정 컨설팅,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대체교사 파견사업, 가정 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맞춤형 부모교육 및 상담,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에 새 터전을 잡음으로써 기존 일가정양립 지원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는 직장맘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가족친화인증사업, 여성취업 증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면 대출할 수 있다.

사직도서관 관계자는 "이 외에도 200여권의 대월자본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며 "큰 글씨로 쓰인 책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사직도서관(062-613-7774, 7781)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